

# 마드리드大學과 스페인의 大學制度

金 顯 場

(서울大 西語西文學科)

## 머리말

모름지기 한 사회에 있어서 大學이 표현하고, 具現하는 理想은, 그 사회의 理想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典型이 되어 왔다. 앞으로 설명할 스페인의 마드리드大學校(정식 명칭 :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이하 마드리드대학, 또는 알칼라대학이라 함)는 이러한 時代的, 學問的 均衡을 가장 잘 조화시키면서, 거의 5世紀 동안 면면히 그 전통을 이어 온 것이다. 마드리드대학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학교의 制度나 분위기를 고찰해 보는 것은 동시에 스페인 歷史의 矜持와 榮辱을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이 된다.

그러던, 먼저 마드리드대학의 開校와 그 歷史를 살펴보고, 이 대학이 차지하는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위치와 현재의 여러 상황 및 一般의 스페인 敎育制度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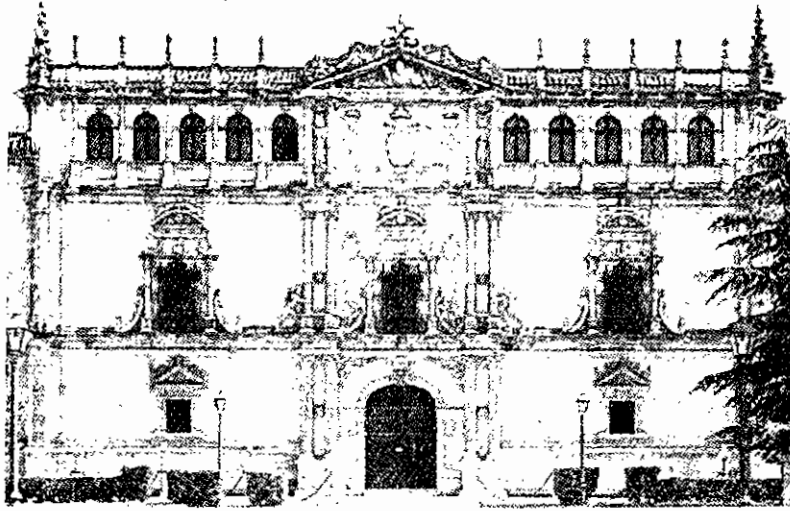
## 마드리드大學의 歷史와 特徵

마드리드大學의 起源은 12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톨레도(Toledo)의 미주교였던 곤잘로 구디엘(Gonzalo Gudiel)이 카스티야의 왕 산초 4세(Sancho IV)로부터 알칼라 데 에나레스(Alcalá de Henares—마드리드 東北쪽 19마일 지점에 위치한 古都로서 로마제국이 지배할 때에는 콤플루툼(Complutum)이라는 地名으로 불

리다가 아랍인들이 이베리아반도를 침공했을 때부터 알칼라 데 에나레스라고 불림)에 一般大學(Studium generale)의 設立 허가를 얻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1459년에는 후안 2세(Juan II) 치하에서 교황 피오 2세의 승인 아래, 아쿠냐(Alonso Carrilo y Acuña)가 문법, 예술 등의 세 강좌를 강의한 바 있다.

그러나 마드리드대학의 실질적이고, 명실상부한 誕生은 1508년 7월 26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황 알렉산더 2세의 교서에 의해 1499년 3월 14일에 San Ildefonso 本大學의 건립이 허가되자, 이사벨女王(1451~1504) 治下에서 톨레도의 추기경 및 총리 대신이자 이사벨女王의 교해 神父였던 히메네스 데 시스네로스(Jiménez de Cisneros)가 이사벨女王이 승하한 후 섭정을 하면서 1508년 알칼라에 역사적인 개교를 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中世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이미 여러 대학들이 名聲을 떨치면서—Bolonia(1098), Paris(1215), Nápoles(1224), Oxford(1249) Salamanca(1255), Cambridge(1248)— 학문적 업적을 이루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대학들은 同一한 言語, 즉 라틴어의 사용을 통해 절대적인 敎皇權의 확립을 추구하였고, 십자군 전쟁을 수행함에 따라 宗教的·政治的·文化的 및 軍事的 공동체로서의 特徵을 지니면서 교황령에 따르는 敎會의 강력한



◀ 마드리드大學 본관

비호 아래 엘리트교육을 전담하였으며, 주로 스킨라 철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을 형성하였다.

이에 반하여, 마드리드대학은 다른 대학의 貴族의 분위기를 배격하면서 문예부흥기(Renaissance) 初期의 人本主義的 傾向을 지니고 출발한 대학이었다. 이 대학의 실질적 創設者인 시스네로스는 문예부흥기 초기의 여러 사상을 스페인에 紹介한 인물로서 이탈리아를 模倣한 르네상스적 인물이 아니고, 산타 테레사(Santa Teresa)나 산 환테 라 크루스(San Juan de la Cruz)와 같은 스페인적 르네상스 시기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이념은 면면히 역사와 더불어 새로이 태어났다. 또한 이 시기에는 스페인의 新大陸 發見과 함께 정치적·경제적 上昇期에 상응하는 대학의 自負心이 발흥하여 學問의 發展에 民族的 矜持까지 加勢함으로써 이 대학의 民族的 性格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알칼라대학은 王立大學의 위치까지 올라가 무수한 왕들의 訪問地가 되었다. 알칼라대학은 왕립 대학적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또한 大衆的 大學으로서의 면모도 잘 살렸다. 즉 다른 대학들이 귀족적이며 엘리트 중심적인데 반하여 알칼라대학은 가난한 학생들과 귀족 학생들을 同等하게 취급하였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과 무상의 기숙사(Hospital)를

나누어 주는 등의 施惠를 베풀어 학생들을 도왔다.

시스네로스의 大學에 대한 열정은 대학 都市의 建設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최초에는 본 대학을 중심으로 한 18개의 부속 대학으로 이루어진 都市의 건설이었다. 즉 본 대학(Colegio Mayor)인 산 일데폰소(San Ildefonso)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독지가의 출연금으로 주위에 부속 대학(Colegio Menor)을 건립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각 부속 대학은 주로 聖人의 이름을 대학명으로 삼아 각각 독특한 학풍을 유지하였다(Colegio Menor de San Pedro y San Pablo, Colegio Menor de la Madre de Dios, Colegio Menor de San Isidoro 등 초기(16세기)의 7개 부속 대학, Colegio Menor de Trinitarios Calzados 등 후기(17세기)의 30개 부속 대학이 있었음).

특히 문예부흥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시스네로스의 업적은 유명한 學者 메넨데스 이 펠라요(Menéndez y Pelayo)가 “스페인을 향한 영원한 榮光의 기념비(Monumento de eterna gloria para España)”라고 칭찬 不巧의 다국어 성경(La Biblia Políglota)의 인쇄를 완성한 일이다. 라틴어 성경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히브리어, 칼데아어 등 4개 국어로 성경을

인쇄·출판하였는데, 그 初版은 1514년 전 7권 중 5권이 브로카르(Arnaldo Guillermo de Brocar) 인쇄소에서 나왔고, 나머지 제 6권과 7권이 1517년 600부로 인쇄·출판되어 문에부흥기를 맞이하는 스페인에 새로운 감동과 활력을 주었으며, 스페인 역사상 불후의 傑作으로 칭송된다. 이 어려운 출판은 카톨릭교도 페르난도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으며, 이 성경의 인쇄·출판은 1528년의 3개 언어 대학(Colegio Trilingüe)의 기원이 된다. 이러한 알칼라의 분위기는 살라망카(Salamanca)대학의 학생과 교수들을 불러들여 새로운 學風의 진작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대학의 교육과 행정은 산 일데폰소 본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개교 2년 후인 1510년에 대학 법규(Constituciones Universitarias)가 완성되었다. 대학의 行政은 산 일데폰소 本大學의 總長, 附屬大學의 學長, 그리고 왕이 파견하는 고문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총장은 모든 학교 행정의 감독 기능을 했으며, 부차적 案件은 왕의 고문관에 일임했다. 각 科目의 커리큘럼은 각 科의 학과장에 의해 조정되었고, 산 일데폰소 本大學의 長總은 매년 學生들의 秘密투표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그의 權限은 왕에 의해서보다 敎皇에 의해 보호되었다.

또한 대학의 自律權은 완벽하게 보장되어 대학내에 자체 司法權을 유지하고 심지어 監獄까지 설치하여 두었으며, 학생들의 自治權도 대단하여 모든 權威에서 자유로웠다. 또한 학생들에 의해 실시되는 敎授의 評價는 학생과 교수의 관계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총장의 권한이 막강하여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는 엄한 처벌이 항상 뒤따랐다. 특히 시험제도가 아주 엄격하였다. 가르치는 교수와는 상관없는 박사들에 의해 준엄하고 엄격한 시험을 치렀다.

개교 초기(1508~1509)의 교과과목은 파리대학의 것을 본떠 哲學, 神學, 文學, 醫學의 4과를 두었으나, 1510년 대학 法規(Constituciones Universitarias)가 확립되고 나서는 神學, 修辭學(운병과 시학), 文法(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 哲學, 敎會法 등 주된 과목 아래에

부수되는 여러 과목이 개설되었는데, 그 당시의 敎科課程은 교회 행사에 필요한 과목에 집중되어 개설되었다. 성직자에게 별 효용이 없는 醫科는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 1514년, 民法은 왕령에 의해 1672년에 가서야 허가되었다. 각 과정의 試驗에 합격하면, 學士, 碩士, 博士의 학위가 수여되었다. 초기의 인본주의적·카톨릭적 사랑, 平等에 기초를 둔 民主的方式의 대학 運營 및 문에부흥기적 思想과 多國語 聖經(La Biblia Poliglota)의 出版으로 알칼라대학의 명성은 전 유럽에 파급되어, 1525년에는 프랑스 국왕 프랑수와 1세(François I)가 이 대학을 방문하여 偉大한 開拓者 시스네로스를 칭하여 “프랑스에서는 여러 왕들이 이룩한 業績을 혼자서 해냈다”라고 稱頌했다.

그 후 스페인帝國의 全盛期인 펠리페 2세(1527~1598)에 이르러 명실상부한 王立大學이 되어 콤플루텐세 王立大學(Real Universidad Complutense)이라는 명칭을 얻는다. 왕의 대학에 대한 熱情은 이 대학을 자주 방문하게 하였고 博士學位 授與式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치의 中央集權化로부터 파생되는 대학 自治權의 弱화로 인하여 개교 초기 시스네로스가 계획했던 대학의 개념은 專制君主制가 확립됨에 따라 국가의 심한 간섭을 받게 된다. 그러나 17세기 前半에는 전세기에 누렸던 대학의 營光을 계속 누리게 되지만, 1623년에 알칼라대학을 마드리드로 이주하려던 계획은 마드리드의 교육환경과 基本的인 教育與件의 未備로 연기된다.

이 시기는 스페인의 黃金世紀(Siglo de Oro)에 해당되는 때여서 王權이 안정되고 對外的으로 絕對的 힘을 행사할 때이다. 특기할 것은 1657년에서 1658년에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서 행해진 펠리페 4세의 王子 탄생기념 祝祭의 개최로 다시금 王立大學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했던 점이다. 신대륙 植民地 경영의 失敗와 對外的인 政治의 쇠퇴는 17세기말부터 대학에 至大한 영향을 미쳐, 理想의 枯竭, 財政의 어려움 그리고 神學과 人文學의 쇠퇴 등으로 그 역할과 명성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시스네로스가 주창한 대학의 民主的 獨立性과 自律性은 위축되어 갔다. 그 구체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1666년의 메드

라노(Medrano) 개혁안에 의해서 대학교와 부속 대학이 국가 행정의 일부분에 귀속되면서 大學自治權이 서서히 制約당한 것이다. 즉 부속 대학의 경제적 능력이 國家에 종속됨에 따라 자연히 자체 능력은 약화되고 전체 대학의 自律權이 크게 침해 당한 상태에서 18세기를 맞게 된다. 17세기 중반의 대학의 흐름은 18세기에 이르러 프랑스 부르봉王朝의 중앙 집권 정책과 地方自治의 弱화로 더욱 프랑스化된다(전통적인 스페인 아스투리아스(Asturias) 王朝는 각 自治지구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政策을 사용해 왔다). 곧 알칼라대학도 프랑스의 소르본느대학의 學制를 모방한다. 1725년 의과 과목의 폐쇄, 1734년 사립 대학의 학위 인정(마드리드대학은 1928년까지 스페인에서 博士學位를 수여하는 唯一한 대학이었다) 등은 곧 알칼라대학의 傳統的 權威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1740~1741년 사이에 각 대학의 학문적 특성을 무시한 대학의 國立化 政策(전세기의 王立大學과는 根本적으로 다른 프랑스式 國立化)에 대한 討論이 벌어지나 별 실효를 못 거둔다.

1764년부터 알칼라대학의 해체가 진행되어 다른 부속 대학에 비해 귀족적 분위기를 지닌 산 일데폰소 本大學은 單科大學의 興성으로 인해 權威를 잃어 간다. 결국 1776년 6월에 시스네로스가 세운 알칼라대학의 산 일데폰소 本大學은 그 전의 傳統과 단절된 채 그 권위가 사라지고, 대학이 국가 행정의 부속물로 轉落하게 되며 산 일데폰소 本大學을 예수회의 대학에 통합시키려는 계획이 수립된다.

대학의 移轉과 통·폐합은 로하스(Rojas)의 계획에 의해 구체화되어 1777년 12월에 카를로스 3세(1759~1788)의 왕령으로 공포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 일데폰소 本大學을 새로운 알칼라대학과 구별지어 해체하고, 대학은 그 總長을 임명할 수는 있으나 산 일데폰소에 재직중일 때는 임명될 수 없고, 산 일데폰소의 학사 관리는 정부 장관에 의해 감독을 받고 총장은 단지 本大學의 管理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 즉 1769년에는 정부에서 파견하는 각 대학의 顧問官이 임명되어 대학을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1770년에는 대학의 宗敎的 正統

性과 學位政策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실시된다.

이러한 구체적 절차로 인해 대학은 學生과 教授의 자율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왕실과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官僚 司祭에 의해 統制되고 운영되었다. 이러한 대학의 중앙집권화와 교육의 국가 예속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공과 獨立戰爭으로 대학의 많은 資料와 財産을 流失케 하였고, 대학의 財政은 파탄에 이른다. 나폴레옹 治下를 거쳐 1820년에는 大學 統合法이 스페인 모든 대학에 적용되고, 政治의 不安定—자유주의파와 보수주의 對立—은 學問의 커다란 위축을 가져온다. 이때부터 알칼라대학의 마드리드 移轉派와 알칼라 殘留派가 나뉘어져 격렬한 토론을 벌이다가, 1822년에 중앙대학교(Universidad Central)라는 大學名으로 마드리드에서 開校하지만, 부족한 교육 여건과 정치적 變化的 變化로 1823년에 다시 알칼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미 황폐화된 경제적 여건과 정치적 派爭으로 混亂을 겪던 중 1825년에 마드리드에 醫科大學(Facultad de Medicina)이 설립되고 뒤이어 여러 교육기관이 생긴다. 결국 1836년에 중앙대학교(Universidad Central)라는 이름으로 마드리드로 완전히 移住하게 된다. 당시의 스페인 政治 상황은 극도의 혼란 속에 있어 獨裁, 無政府主義, 專制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알칼라대학의 마드리드 移轉은 외국에서도 그를 ‘革命的 事件’이라고 부를 만큼 충격을 주었으며, 이 이전을 두고 사람들은 ‘알칼라의 실수(La Inocentada de Alcalá)’라고 회화화한다.

즉 大學의 自律權과 自治權의 상실과 더불어 시스네로스의 大學 理念이 무너져 버린 데에 대한 鄉愁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그 후 이사벨 2세(1833~1868)는 1844년 3월 大學 中央委員會(Junta de Centralizacion)를 통해 대학 회계의 公開를 요구하고 大學 査察을 실시하였다. 또한 1844년 8월에는 모든 대학의 自律的 財政 收入을 大學 中央委員會에 귀속하게 함으로써 대학은 사실상의 재정 독립권을 상실하게 된다. 드디어 1845년에 전세기의 전통과 단절된 새로운 大學制度가 실시되어 4개의 단과

대학(신학, 법학, 의학, 약학)으로 나뉘고 3단계의 학제(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되다가, 곧이어 철학 및 문학, 법학, 과학, 의학 및 약학으로 개편되는데 국가에 의한 과도한 획일화와 집중화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1921년 대학의 자치법이 공포되고, 1926년에는 대학의 재정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 실시되어 부분적인 대학의 자율권이 회복되었다. 스페인 시민전쟁(1936~1939)이 끝난 후, 중앙대학교는 다시 마드리드대학교(Universidad de Madrid)로 校名을 바꾸고 마드리드 근교에 광대한 터를 잡아 大學都市(Ciudad Universitaria)를 건설하여 마드리드市內에 散在해 있던 모든 단과대학들이 同一한 캠퍼스로 이전함으로써 오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68년까지만 해도 마드리드의 유일한 大學校였던 마드리드대학 외에 1968년에 마드리드 자치대학(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과 1971년 마드리드 공과대학(Universidad Politécnica de Madrid)이 開校하게 되어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16세기 초기 대학의 正統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1968년부터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大學校(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라는 正式名稱을 사용하고 있다.

## 스페인의 教育制度

스페인의 교육은 다양성과 자율성 그리고 직업에 대한 信念 등을 기르는 데 그 目標을 두고 실시되고 있는데 대학교육의 特殊性과 獨自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업 교육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大學教育의 精銳化와 專門化를 위해 初期 교육에서 적성과 능력을 가려내어 上級學校로의 진학을 유도함으로써 인력의 낭비를 줄이려는 政策的 配慮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던 단계별 교육 과정을 살펴보자.

(1) 취학전教育 過程 : 2세~5세

(2) 一般 基本教育 過程(Educación General Básica): 6세~13세, 2단계(5년+3년) 8년으로 되어 있으며 國家의 無償教育으로 실시된다.

졸업 후에는 고등 교육 과정(Bachillerato)이나 제 1 단계 職業學校(Centros de Formación Profesional de Primer Grado)의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3) 高等教育 過程 : 14세~16세, 한국의 人文系 고등학교의 과정에 해당되며 大學 豫備 教育 過程(Curso de Orientación Universitaria 약칭 C.O.U.)이나 제 2 단계 직업 교육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4) 大學 豫備教育 過程(C.O.U.): 一般 大學을 들어 가기 위한 1년간의 大學 豫備 過程으로 여기에서 合格 評定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일반 대학(Facultades Universitarias) 및 고급 공과 대학(Escuelas Técnicas Superiores)이나 전문 대학(Escuelas Universitarias)에 지원할 수 있는 資格이 주어진다.

(5) 一般 大學教育 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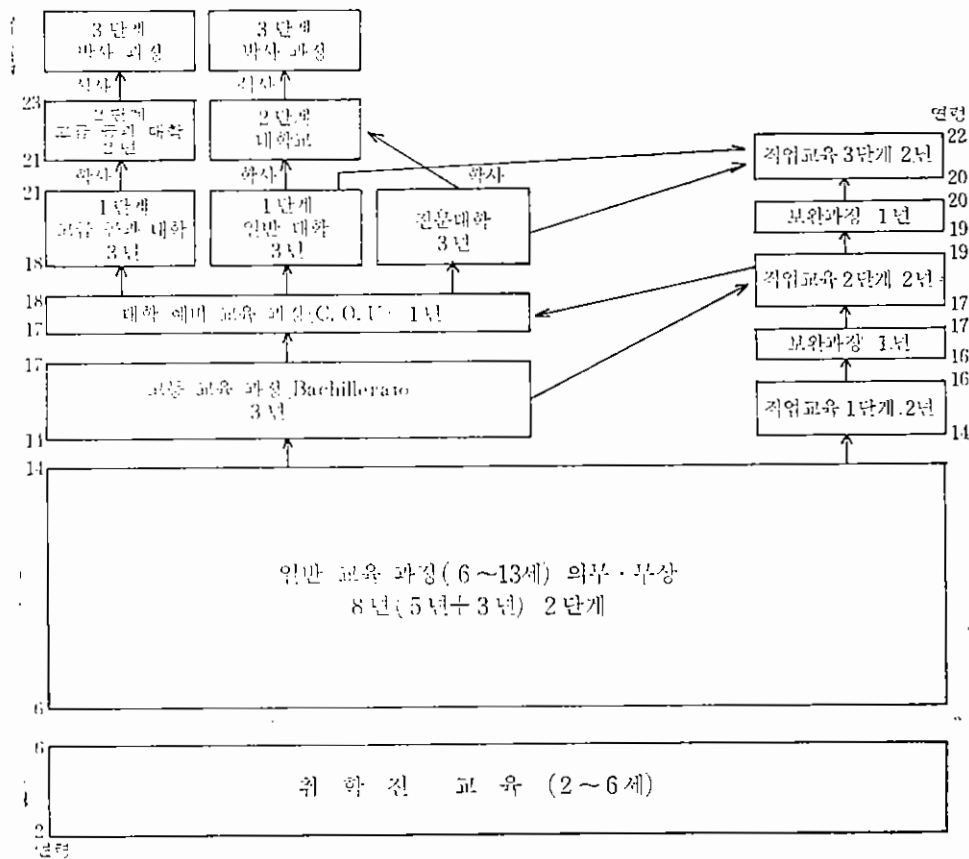
① 제 1 단계 기본 교육 과정 : 전공과정을 들어가기에 앞서 3년 동안의 準備過程, 학위는 학사(Diplomado)

② 제 2 단계 전문교육 과정 : 각자의 專攻에 따라 전문적인 知識 및 이론을 습득, 과정은 2년(의대는 3년), 이 과정을 마친 사람은 과에 따라 석사(Licenciado), 건축기사(Arquitecto), 엔지니어(Ingeniero)의 학위 취득

③ 제 3 단계 : 1, 2년의 전문 연구직 및 교직 진출 교육과 훈련 후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후 논문 제출로 박사 학위 취득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교육 과정에서 일반 대학 교육 과정은 여러 층과 단계로 複合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의 學問的 聯關性과 개인의 進路 選擇에 따라 각 단계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履修할 수 있다. 각 단계의 大學教育의 특성을 살펴보자.

(1) 一般 大學(Facultades Universitarias): 우리나라의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공대(응용 공학)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정이 설치되어 있어 1단계 학사 과정을 마친 후 2, 3단계의 석사·박사 과정을 준비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1단계 과정은 교양 과정 대학(Colegios Universitarios)에서 행하고 주로 碩·博士의 수업을



<그림 1> 스페인의 교육과정

진행한다. 자세한 학의 設置 내용은 後述할 마드리드대학의 制度에서 검토하겠다.

(2) 高級 工科大學 (Escuelas Técnicas Superiores): 우리나라의 工科大學에 해당하는데, 스페인에서는 문과와 순수 科學, 醫學 분야의 교육은 一般 大學에서 하고 應用學問인 工學은 따로 대학을 설치하여 별도의 課程으로 교육한다. 이 과정의 제 2 단계를 마친 사람은 공학 碩士 (Arquitecto Superior, Ingeniero Superior)를 받은 후 박사 (Doctor Arquitecto, Doctor Ingeniero) 학위를 취득할 資格이 주어진다. 이 과정은 건축학, 항공 공학, 농공학, 도로 운하 및 항만 공학, 전기 공학, 산업 공학, 광산 공학, 산림 공학, 해양 공학, 전자 통신 공학 등의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3) 敎養課程 大學 (Colegios Universitarios): 大學 전 교육 과정의 제 1 단계(3년) 교육만을 실시하는 대학으로서 보통 제 2 단계를 위한 준

비 과정만 실시한다. 학위는 학사(Diplomado).

(4) 專門大學 (Escuelas Universitarias): 3년 동안 전문적인 技術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경영, 언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學士(Diplomado), 나머지 工學系列은 기술 학사(Arquitecto Técnico, Ingeniero Técnico)를 수여받고 소정의 과정을 마친 사람은 一般 大學의 제 2 단계(석사과정) 과정에 進學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간략한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 1>과 같다.

大學의 構成과 組織

스페인의 大學은 대부분이 국립 대학인데 약 22개가 있고, 사립 대학은 약 4개이다.

즉 대부분의 대학이 國家의 감독과 견제를 받으며 나름의 대학 自律權을 행사한다. 전체 대학은 '敎育에 관한 一般法'과 그 條例에 의해

대학의 組織이 明文化되어 있는데, 행정 기구인 文教部 산하 대학연구總局(Dirección general de Universidades e Investigación)과 대학 총장 및 대학 재단 이사장으로 구성된 大學協議會(Junta Nacional de Universidades)의 후원과 예산에 대한 감독을 받으면서 政府와 大學間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대학의 중추적 기구와 조직의 구성원은 총장(Rector), 이사진(Patronato), 교수·학생명의회(Clanstro Universitario) 및 정부 감독관(Junta de Gobierno)으로 최상부를 구성하며 여러 명의 副總長을 둔 실질 행정 조직을 갖추고 있다(마드리드대학은 교무, 홍보, 후생, 문화, 학생, 권리, 대학병원, 경리, 총무 등 9명의 부총장을 지니고 있다). 부총장들은 대학 總長의 직접 감독을 받으며 대학을 운영한다. 또한 총장 산하에는 企劃室을 두어 대학의 경제, 행정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국은 학사 일정과 학사 업무의 보좌를 目的으로 하여 설치되어 있다.

스페인 大學의 특징은 16세기 이래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大學自治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된 教授·學生評議會(Clanstro Universitario)를 두어 대학의 학문적 권위와 대학 傳統의 수립과 보존에 직접 간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직은 명예 박사 학위 수여와 같은 학교 전통에 관계된 일을 자체적으로 調整함으로써 총장을 직접 선출하는 전통과 아울러 16세기 이래의 시스네로스의 대학 전통을 어느 정도 享有하고 있다. 또한 大學 教授는 正教授, 副教授, 助教授, 時間講師 및 助教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강사와 조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博士學位 所持者를 우선으로 하고 正教授의 경우는 문교부 장관과 대학협의회의 추천·지명에 의해 선발할 수 있다. 특히 契約 教授制(Profesores Contratados)라는 제도가 있어 각각의 직급에 해당하는 교수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特殊分野나 外國人 教授를 초빙하여 강의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며 4년에 2번 계약을 맺고, 갱신도 가능하며 문교부의 인준을 얻으면 평생 계약이 가능하다. 마드리드 大學의 경우 전체 교수 數 4,450명 중 계약 교수가 2,492명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한다.

각 대학의 학사 일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1년에 적어도 240일 이상의 수업을 실시해야 하며, 10월 첫 주에 수업이 시작되어, 다음해 6월 첫 주에 종강을 하는데, 실질적인 학사 일정은 보통 9월 11일경에서 다음해 7월 10일경에 이루어지게 된다.

## 마드리드 콤플루텐세大學의 現況 ( '84~'85 학년도 기준)

1508년에 알칼라대학교(Universidad de Alcalá de Henares)로 출발하여 중앙대학교(Universidad Central), 마드리드대학교(Universidad de Madrid)의 名稱을 거쳐 1968년에 지금의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학교(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의 이름을 이어서 내려오고 있다.

현재의 마드리드대학 학칙은 1985년 6월 11일 문교부에 의해 승인·공포된 새로운 法律에 의하여 운영된다.

먼저 마드리드대학의 外形의 規模를 사무국의 통계에 따라 살펴보면, 登錄學生數가 전체 스페인 대학생의 15.35%인 105,000여 명이고 教授數는 전체 스페인 교수수의 13%에 해당하는 4,490여 명이며, 총 教職員은 2,108명으로서 스페인 최고의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다. 다른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의 대학을 동시에 受容하고 있어 一般 單科大學(Facultades)이 17개(哲學 및 教育學, 文獻學, 地理 및 歷史學, 心理學, 數學, 物理學, 化學, 生物學, 地質學, 法學, 醫學, 藥學, 獸醫學, 經濟 및 經營學, 政治 및 社會學, 弘報學, 美術)인데 학문의 세분화와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70년대 중반에는 13개 단과대학이, '85년도에는 그전의 철학 및 文學 大學이 3개의 대학(地理學 및 歷史學, 文獻學, 哲學 및 教育學)으로 분리되고 美術大學이 추가되어 현재의 17개 단과대학을 구성하고 있다. 각 대학에는 학장(Decano)의 책임하에 세분된 科(Departamento)들이 있어 학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또한 12개의 專門大學(Escuelas Universitarias)이 일반 대학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학

장(Director)에 의해 운영되고, 교양과정 대학(Colegios Universitarios) 8개가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명실공히 스페인 最高의 大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一般 行政 기구로서는 총장 산하의 전술한 9개 部가 있어 실질적인 行政과 학교 운영을 맡고 있다. 특별히 학생과(Vicerrectorado de Alumnos)에서 맡고 있는 학생 선발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마드리드대학교가 當面하고 있는 문제점과 現實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드리드대학의 入學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데 가장 기본적인 코스는 대학 예비교육과정(C.O.U.)으로서 1년 동안의 과정에서 성격과 지망에 따라 대학이 학생을 選拔하는데 특히 醫科大學이나 獸醫大學의 지원자가 定員보다 항상 초과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方法이 모색되고 있다. '84년~'85년의 마드리드대학에 지원하려는 C.O.U. 과정의 학교는 227개소이고 등록 학생수는 28,958명인데 6월에 실시되는 지원 사정에서 그 65.79%인 19,056명이 입학지원 許可를 받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만 25세에 달한 사람 중에서 C.O.U.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정의 자격 試驗을 치르게 하여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대학 입학 선발고사(Pruebas de Selectividad para acceso a la Universidad)의 25개 분과에 걸쳐 시험을 행하는데 '84~'85학기에 18,563명이 登錄하여 14,788명이 合格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과정을 이수하거나 입학 관정을 받은 지원자들에게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입학을 위한 예비 등록을 받는다. 이러한 등록생들 중에서 합격 관정을 받은 사람은 '84~'85년도에 2만 3천여 명이었는데 대학 학위 심사(Convalidación) 결과 통과한 학생 수는 2천 2백여 명 내외로, 이는 入學하기는 쉬운 반면, 학위 취득이 어려운 스페인 大學의 현실을 잘 나타내 준다.

'84~'85년도의 會計上 豫算額을 살펴보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교육 예산은 國家 豫算의 8.07%인 493,583.9백만 페세타(페세타는 현재 스페인의 화폐 단위로 1 페세타 당 6원)이고, 마드리드대학의 豫算은 文敎部 예산의 일부분에 속하면서 自治 行政機構 예산에 포

함된 전체 대학의 예산 103,024,47백만 페세타 중 12.57%인 12,950,37 백만 페세타를 차지해 전체 대학에 비해 상당히 많은 비율이지만, 過多한 학생과 교수수로 인한 人件費의 지출은 他 大學에 비해 월등히 높아(대학 예산 중 人件費 支出이 87.20%) 福祉 豫算의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마드리드대학에서 特記할 만한 것으로는 傳統의인 寄宿舍를 들 수 있다. 國立寄宿舍(Colegios Mayores) 7개와 私立 財團이 운영하는 41개의 기숙사에서 약 8천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모든 기숙사는 大學 都市(Ciudad Universitaria)내에 위치해 있으며, 마드리드에서도 가장 現代的인 建物로 되어 있다. 기숙사의 주임은 大學 敎授나 講師가 役임하고 있으며, 마드리드대학 학생들의 모든 課外活動은 이들 寄宿舍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엄격한 규율에 많은 特혜를 누린다. 기숙사 외에 마드리드대학에서 특징적인 것은 圖書館이라 할 수 있다. '80년을 기준으로 도서관의 총 장서수는 82만 2천여 권에 이르렀으며 國立 圖書館에 이어 스페인에서 두번째로 큰 도서관이다. 이 대학 도서관의 起源은 시스네로스가 알칼라대학을 개교하기 전인 1341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의 開校와 함께 16世紀에 시작된 도서관의 장서 확보 노력으로—여러 번의 정치적 변동으로 인하여 여러 장서들이 流失되는 不運을 겪었지만—아직도 귀중한 자료를 많이 보존하고 있다. 그 代表的인 것들로 시스네로스에 의해 간행된 多國語 聖經(La Biblia Poliglota Universitaria)과 賢王 알폰소 10世(Alfonso X, el Sabio, 1252~1284)의 「天文學 概說(Los Libros del Saber de Astronomia)」 筆寫本 등이 있다.

마드리드대학 圖書館은 각 單科大學 도서관의 集合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과대학의 도서관은 自治的 活動과 管理의 自律性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행정과 감독은 대학 도서관장의 지휘와 통솔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도서관의 각 단과대학과 研究所로의 分散이 종합적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각 單科大學의 特色과 學問的 特殊性을 유지하면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